

“작은 정성으로 큰 기쁨 함께 할 수 있어 행복”

총본산성역화 불사 '문자모연' 인기

‘불교문화 성역화 작업 응원합니다.’ ‘총본산 성역화불사 파이팅 조계사 파이팅.’ 한국불교 1700년 역사상 최대 불사로 꼽히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불자들의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바로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자 모연을 통해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3000원을 후원하는 캠페인인데, 기금을 보태면서 불사의 원만 성취를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도 함께 보내오고 있는 것이다.

성역화불사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6일 모연의 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후원캠페인이 진행된 이래 현재까지 1500여 건이 접수됐으며 다양한 응원 메시지도 함께 도착하고 있다. 익산에 사는 한 신도는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드리며 총본산 성역화 원만 성취를 기원한다’는 글과 함께 후원에 참여했으며, 또 다른 신도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불화 청량사에 다니는 한 신도는 매일 다른 메시지를 적어 문자 모연에 동참하고 있다. ‘기분 좋은 하루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음에 나는 참 행복합니다’, ‘작은 정성으로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등의 내용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성역화 불사의 원만한 추진과 더불어 자녀 학업성취나 취업 희망, 무사고, 영가 극락왕생 등 발원의 마음을 담아 후원에 참여하는 불자들도 있다.

성역화불사추진위는 “지난 4월7일 전국 동시 초하루법회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문자 모연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전국 불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한국불교 중흥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읽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불사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는 조계사를 중심으로 견지동 일대를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정비하는 대작불사이며, 지난 3월25일 조계사 신도회관 절거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성역화불사추진위는 올해 10·27 법난기념관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지침서 제작과 사업부지 매입, 모연활동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환으로 지난 4월27일 서울 조계사 일원에서 '제9회 불교아동미술대전'을 개최했다. 서울·경기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 800여 명이 참가한 행사에서는 '부처님과 나'를 그린 정릉1동어린이집 김려원 어린이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린이들과 학부모, 교사 등에게 단주를 선물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주 기자 cooljoo@bulgyo.com



성전스님의
행복해지고 싶을 때

착한 사람들은 부처를 닮았다

내 기억 속에는 착한 사람들 몇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들의 표정은 약간의 변화만을 보일 뿐 예의 그 조용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환하게 웃고, 약간 슬프게 웃고 또 깊은 표정을 짓거나 입을 닫거나 하는 것들이 변화의 전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 똑같이 대하고는 합니다. 교양의 정의가 잘난 사람이란 뜻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는 것이라면 착한 사람은 교양인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좌선을 하다가 문득 오래 전 지인이 떠올랐습니다. 참 착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면서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아가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모습과 표정은 여전히 착하게 간직하고 있는지 보고만 싶었습니다. 그에게 잘 못했던 지난날을 참회하고 용서를 빌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나는 세상에 용서를 구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내게는 부처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연민과 자비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에 악은 사라지고 그냥 잔잔한 미소가 샘솟습니다. 아마 부처님과 마주한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해 보고는 합니다.

착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손해를 볼지언정 남을 손해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모두 다 자기 이익을 최고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이익과 편함 버리고 배려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착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몇 명의 착한 사람들에게 참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 마음 속에 부처로 남아서 내게 착한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부처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떠오를 때면 나는 함성을 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바람이 부드러워 더욱더 생각나는 부처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남해 염불암

■ ‘한전부지 환수 기원 3보1배’ 4면

■ 신달자 시인 ‘문인예세이’ 집필 18면

장애인 가족 걱정없는 세상 ‘서원’

총무원장 자승스님 자비행 앞장

신륵사 운영지원 복지시설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계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을 찾아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보셨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4월28일 여주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과 여성장애인보호시설을 찾아 시설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장애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과 여성장애인보호시설은 자립과 고용불안으로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륵사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다.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

은 장애인들의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등을 통해 근로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다. 주요 상품으로 팬지, 허브, 국화 등을 직접 재배하고 판매하며 지역 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신륵사와 연계해 상품 판로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고 있다. 여성장애인보호시설 역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시달리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취업이나 직업훈련, 재활훈련을 돕고 있다.

총무원장 스님은 “복지 시설이 많고 일이 많아 신륵사 주지 스님이 고생이 많다.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직업훈련을 받으신) 장애인 가정 부모들이 걱정이 없을 것 같다”며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자비행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신륵사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여주시노인복지관,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신륵사요양원, 선유학교(대한교육장기위탁기관) 등 신륵사 산하 복지시설장들에게 단주를 선물하며 맑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중증 및 여성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아름다운동행에 통해 모금된 자비나눔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작업장에서 직업훈련 중인 장애인들에게 직접 단주를 채워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월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정문스님, 호법부장 세영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승스님, 신륵사 주지 청곡스님 등이 함께 했다. 여주=임태규 기자

강화, 사업일정 준수, 준공 후 절차 강화 등 관련 정책 등을 설명했다.

불교문화사업단장 성효스님은 “포교현장에서 템플스테이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수고로 한국불교는 더욱 발전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고보조금 집행은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는 만큼 절차상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국고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만전”

문화사업단, 지원시설관계자 교육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올 한해 템플스테이 국고보조금 시설지원과 관련, 감리제도 강화 등 투명성 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4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템플스테이 시설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교육’을 실시했

다. 각 사찰 템플스테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올해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사업 정책 등을 공유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앞으로 관련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업체 선정 전 자부담 여부를 확인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더불어 사업단에서 지역별로 구분해 감리업체 3~5개를 선정해 사찰에서 지정 업체로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지정 감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 단계별 현장실사 등 감독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027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장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계좌이체계좌) (계좌이체계좌)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사찰장엄불사 보려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정품LED전구



공 단 등



보려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